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기업 경영 & 관리 시스템

1631036005 명재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용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질때까지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보며, 어짜피 사람이 질 경기를 뭐하러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절대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영역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신경망에 대해 공부를 더 하면서 내가 그렇게 확신, 아니 과신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한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두뇌는, 인공지능에 관련한 용어로 설명하자면, 인간의 뉴럴 넷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는 전제하에 있다. 인간의 두뇌가 처리하고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자리잡게 된다. 습관이 생기게 된다면, 습관에 반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쉽게 정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뉴럴 넷은 조금 다르다. 컴퓨터의 성능만 따라와 준다면,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훨씬 넘어서 무한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기억한다. 또한 습관에 반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고 반영한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뇌가 모두 다르며 그 두뇌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과는 다르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해 인사 관리를 하는 기업이나, 인사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인이고, 자국인 일본의 기업 문화, 인사 관리 제도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플랫폼 및 기업들의 인사 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사 관리 시스템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 혹은 여러 분석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매우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듯이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인사 및 기업 경영과 같은 분야는 집단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 두명의 가치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서는 안되는 분야이다.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감’을 이야기 하는 것 외에, ‘육감’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 시각, 청각,촉각, 미각, 후각 외에 흔히 말하는 ‘촉’이라는 감각이 있다. 이전에는 ‘촉’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감각이라고 생각해 왔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촉’이야 말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촉’은 말이나 행동으로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근거를 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정보들과 생각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공지능 이야 말로, 쉽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촉’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뻔한 일본의 경영 시스템, 기업 경영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반영해야 한다는 진부한 이야기에 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미 인공 지능은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기술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올라서, 사람을 제어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많은 공학자들이 고민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